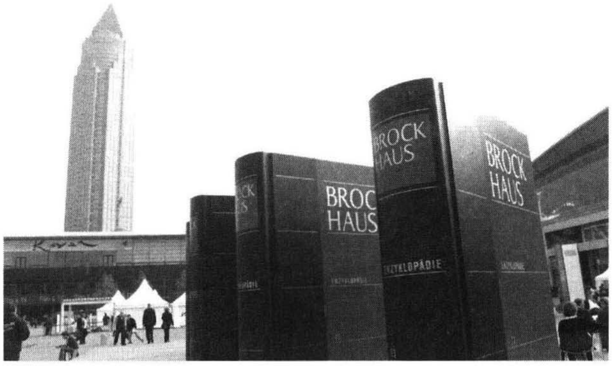
의 가능성 있는 작가와 소통하고 그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전문에이전트 육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당장의 유명작가를 잡기보다는 젊고 가능성 있는 작가에 주목하고 이들과의 꾸준한 교류를 통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팔릴만한 작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한국문학번역원에서 공익적인 성격의 에이전시를 만드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번역 지원 일변도에서 벗어나 가능성 있는 국내 작가의 정보를 해외에 제공하고, 그들 입장에서 해외출판사와 계약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출판계 소식통에 따르면 겉으로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주빈국 행사 준비 과정에서도 출판계와 에이전시간의 갈등은 상당히 심화되었다. '에이전시들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심산'이란 게 출판계 일각의 정서라면, 에이전시들은 주빈국과 자신들의 비즈니스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저작권 전문가들은 "한국출판이 세계화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해외로 뻗어나가려는 국내출판계 의지와, 그동안 해외 저작권자와 출판사를 상대해온 에이전시의 노하우가 만나 시너지효과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독일 · 프랑크푸르트=글_ 신동섭 기자 | 사진_ 박신우 기자

##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을 움직이는 세 개의 축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은 크게 경제, 문화, 정치 등 3개의 축으로 움직인다. 먼저 비즈니스는 그중 첫번째 '베이스'다. 1544년 구텐베르크의 금속인쇄 발명으로 출판물의 대중화를 이룬 후 다양한 출판물들이 프랑크푸르트를 중심으로 거래되었다. 이후 전쟁으로 끊겼던 도서전은 2차세계대전 직후 재개된 후 57년이라는 짧은 역사 동안 세계 출판문화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은 2004년 기준으로 16만4천평방미터 규모의 다섯개 전시관에서 6,691개의 개별출품작, 79개의 개별 국가 혹은 공동 전시, 18만 명의 서적수입상이 참여해 거래를 하고 있다. 도서전 현장 거래액은 6억 유로(약 7,680억 원)으로 지역 경제파급효과는 10억 유로(약 1조 2,8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갈수록 도서전이 침체를 겪고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전시업체수가 5퍼센트 늘었을 뿐만 아니라, 전시공간 4퍼센트 증가했으며 방문객수도 5퍼센트 늘었다.




도서전의 두 번째 축은 문화다. 이는 기본적으로 도서전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모든 문화의 메모리인 책이라는 점 때문이다.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은 단지 출판업계의 전시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서전 자체와 프랑크푸르트,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폭 넓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수천명의 독자들을 매혹시키는 국제적인 문화행사로 자리잡았다.
특히 주변국으로 선정된 국가는 도서전 조직위의 도움을 받아 프랑크푸르트 시 전역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게 된다. 작년 아랍연합에 이어 우리나라는 '대화와 스밈'이라는 원칙 하에 공연, 전시, 학술, 영화, 건축 및 불교문화 등을 소개함으로써 보다 역동적이로 총체적인 한국에 대한 상을 세계인에게 각인시켰다.

세 번째 축은 정치다. 국내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서는 매년 '평화의 상'을 시상하고 있다. 올해 수상자는 터키 작가 오르한 파묵이다. 특히 오르한 파묵은 노벨문학상의 유력한 후보로 올랐으나, 터키 정부와의 껄끄러운 관계를 의식한 노벨문학상위원회의 보수성에 의해 수상이 좌절된 직후 '평화의 상'을 받아 그 의미를 더했다. 요하노 스트라세Johano Strasser는 도서전 개막기자회견에서 "700명 저자가 박해를 받고 있고 15명이 살해를 당했으며, 20명이 실종됐고, 10여명이 납치, 30명이 추방, 5명이 도피했다."고 밝혔다. 그는 "테러와 '테러와의 전쟁'이 전 지구를 몰아치면서 점점 선진국과 그 이외의 국가를 넘어 자유와 출판이 저해되고 있다"며 "도서전에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이슈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직위는 이란의 비네라스와 같이 정부로부터 탄압받는 작가의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도서전은 세계의 지식 생산자들을 보호하는 NGO의 역할을 함으로써 세계 지성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독일 · 프랑크푸르트=신동섭 기자